

# 國立公園 管理에서 公園規則에 關한 知識水準과 環境毀損 行爲意圖와의 關係

金 容 根

東新大學校 自然科學大學 環境造景學科

## Relationships between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Regulations and Depreciative Behavioral Intentions in National Park Management

Kim, Yong-Ge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 Shin Univ.

### ABSTRACT

Based on the data gathered by on-site survey at six univers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regulations and depreciative behavioral intentions in National Park management. 558 students a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mong those agreeing to take part in the survey, 54.5% are males and 45.5% are females. Generally most students are very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al problem in national parks. The mean of knowledge about regulations in national parks score 57, and females have higher mean scores than male students. In all four dilemma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are observed between the likelihood of a prosocial action and the likelihood of an antisocial action. In other words, the more likely the intention to obey a regulation in any dilemma situation, the less likely the intention to disobey a regulation, and vice-versa.

### I. 序 論

國立公園에서 環境毀損行爲(Depreciative Behavior)는 훼손된 부분의 보수를 위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汚染行爲者 자신을 포함한 공원이용자들의 餘暇滿足度を 輕減시키는 心理學的인 沮害要因이다(Heywood, Mullins, & Blower, 1984).

自然公園內에서의 環境毀損行爲는 公園管理人

의 管理視線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산속에서 일어나고 公園의 全地域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다. 동시에 발생하는 위치도 깊은 계곡이나 높은 산이라는 특성때문에 利用客이 버리고 간 각종 폐기물은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만아니라 수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現 管理體制나 人員으로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역부족이다 (김용근, 1991). 이와같은 利用客의 反社會的인 行態 (Anti-social Behavior)는 故意로 행한 犯法行爲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겠으나 대부분이 자신의 汚染行爲가 자연생태계나 행위자인 자신을 포함한 다른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認識하지 못한 無知의 결과이거나, 설령 안다고 할 지라도 습관적으로 행하는 無意識的인 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Oliver, Roggenbuck, & Watson, 1985).

國立公園에서 環境毀損行爲를 줄이기 위해서는 國立公園 管理規則을 이해할 수 있도록 利用者를 교육시키는 Communication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Clark, 1976; 김용근 과 Gramann, 1992). 國立公園管理에서 Communication 政策이란 公園利用客이 公園資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汚染行爲가 타 利用客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깨달아 公園管理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Kim, 1990).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公園내에서 資源의 바른 이용을 유도하는 안내판, 계도판체계, 방문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자연교육과 안내 프로그램의 개발 및 公園管理者의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실제 自然公園의 管理에서 公園의 이용규칙을 어겼을 때 단속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이전에 利用者 弘報次元에서 管理者와 利用者 사이에 충분한 Communication이 필요하며, 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내용과 의미가 利用者에게 충분히 認識되었을 때 公園管理效果는 倍加되므로 Communication 정책은 自然公園 管理政策樹立의 先行段階이라고 볼 수가 있다 (kim, 1990; 김용근 등, 1991).

여러가지 연구를 통하여 國立公園을 포함한 自然公園에서 利用者 弘報를 위한 안내책자나 안내판들이 毀損行爲를 줄이는 효과가 증명되었고 (McAvoy and Hamborg, 1984; Ross and Moeller,

1974),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설명하는 基礎研究에서 國立公園 利用者들의 國立公園 管理에 관한 知識水準과 公園管理 規則을 준수하는 利用者 行態 사이에 매우 밀접한 相關關係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Nielson and Buchanan, 1986; Lucas, 1982; Stankey, 1975). Communication 정책의 社會心理學的인 이론적 틀은 利用客들에게 自然公園의 環境의 특성을 알리고 利用者의 汚染行爲가 생태계에 미치는 因果應報的인 結果(Awareness-of-Consequences)를 認識하게 하거나, 公園에서의 책임감 (Ascription-of-Responsibility)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Gramann and Vander Stoep, 1987; Kim, 1990).

國立公園 管理가 선진화된 나라에서 利用者에 의해 발생하는 環境毀損行爲를 줄이는 방법으로 利用者 스스로 毀損行爲를 줄이게 하는 다양한 弘報手段들이 이용되고 있다 (김용근, 1991). 우리나라의 경우 國立公園의 바른 이용을 위한 弘報方法에는 國立公園內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경고판 등이 있으며, 최근들어 國立公園 입장객들에게 公園을 소개하는 안내소책자가 배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미흡할 뿐만아니라 양도 충분하지 못하여 안내서 배부의 중단이 잦은 편이다. 우리나라 國立公園에서 주로 의존하고 있는 弘報나 계도수단으로 自然保護나 環境保護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環境 관련 정보를 현수막을 통하여 얻는 경우가 매우 저조해 (이정전, 오준성, 서해경, 김용근, 1992) 보다 효과적인 홍보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國立公園에서 自然環境의 중요성과 環境毀損行爲가 環境에 미치는 결과를 認識하므로써 利用者 스스로 汚染行爲를 자제하게 誘導하는 Communication 管理方案들의 環境毀損行爲 조절배경을 규명하는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環境毀損行爲의 管理에 社會心理學的인 理論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利用者들이 가지고 있는 國立公園의 생태적 특성이나 一般管理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國立公園 利用者의 環境毀損行爲意圖 (Depreciative Behavioral Intention)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힘으로써 國立

公園 管理者와 利用者간의 Communication 效과의 根據를 說明하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본 연구에는 전국 6개 대학교(서울 시립대, 강원대, 청주대, 대구대, 전남대, 동신대)의 10여개의 單科大學에서 50여개의 전공 학과별로 남녀 558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하여 1992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자체 개발한 설문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설문지의 내용은 國立公園 이용에 관련된 知識程度, 國立公園의 環境毀損의 認識程度, 國立公園에서 이용자가 갖게 되는 行爲의도 (Behavioral Intention)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重要 獨立要因은 利用客의 國立公園에서 이용규칙에 대한 知的水準이며, 從屬要因은 國立公園에서의 環境毀損行爲意圖이다. 毀損行爲意圖는 國立公園에서 누구든지 쉽게 접하게 되는 딜레마에 대한 利用者の 意圖를 語義差分尺度 (Semantic Differential Scale)로 측정했다.

실제 國立公園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한 利用者の 行爲意圖를 間接的으로 유추하기 위하여 '社會的 딜레마 시나리오'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Kim, 1990). 人間行動 研究者들은 실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行爲意圖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認知理論(Cognitive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별한 行爲意圖를 갖게 되며, 그 意圖는 특정한 행동을 결정하는 要因으로 작용한다 (Ajzen and Fishbein, 1980). 개인의 행동과 行爲意圖 사이에는 강한 相關關係가 있으며 (Devries and Ajzen, 1971; Davidson and Jaccard, 1975), 餘暇社會學 研究에서 行爲意圖는 레크레이션 行態를 예측할 수 있는 指標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Young and Kent, 1985). 國立公園에서의 社會的 딜레마는 한 개인이 시나리오에서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때 社會的으로나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葛藤狀態를 內包하고 있다. 개인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나리

오에서 설명한 상황증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에 대해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선택은 만일 동일한 사람이 시나리오의 상황과 같은 실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게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Kim, 1990).

이 연구에서는 보통 사람이면 國立公園을 방문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 4가지의 짧은 시나리오가 제공되었다. 4가지의 시나리오는 첫째, 國立公園에서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의 야영행위, 둘째, 國立公園 내에서 불법적으로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세째, 國立公園에서의 취사행위, 그리고 네째,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행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딜레마 시나리오에 대해서 묻는 2가지 질문은 공원 이용 규칙을 준수하자는 提案 (Prosocial Behavior)과 편할대로 행동하자는 提案 (Antisocial Behavior)으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딜레마는 우리가 國立公園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누구든지 공원 管理規則을 준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다.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동료가 提案한 행동에 대해 應答者가 그 提案을 받아 들이거나 그렇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意思表示를 하는 5단계 語義差分尺度를 사용하였다 (Kim, 1990).

사회과학 조사방법을 교육받은 설문조사자에 의해 각 6개 대학교 교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sup>+</sup> 통계처리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 III. 研究結果 및 考察

### 1. 應答者의 個人別 特性

본 연구에 참여한 558명의 大學生중 남학생이 304명, 여학생이 254명으로 각각 총 應答者의 54.5%와 45.5%로 구성되었으며, 應答者의 연령분포는 가장 나이가 어린 17세로부터 최고령인 31세에 이르며, 應答者의 평균 나이는 21세였다. 應答者들의 학년별 구성은 1학년은 144명(25.9%), 2학년은 156명(28.0%), 3학년은 168명(30.1%), 4학년은 71명(12.8%)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원생 이상은

17명으로 전체 應答者의 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되었다.

## 2 國立公園에 대한 認識

지난 3년동안 國立公園을 방문한 횟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방문한 경험이 없는 應答者가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1회에서 4회가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으며, 5회에서 9회가 20%, 그리고 應答者의 7%는 10회 이상의 방문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國立公園에 대한 知的水準

#### (1) 國立公園 指定 與否判斷

國立公園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지를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國立公園과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산들을 나열하고 國立公園 指定與否를 물었다. 이 질문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國立公園과 기타 지역과의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國立公園의 경우 應答者의 98%가 國立公園으로 認識하고 있었으며, 내장산의 경우 85%, 그리고 덕유산의 경우 72.4%가 바르게 認識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주가 國立公園으로 지정된 것을 바로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應答者의 38.2%에 지나지 않으며, 변산반도의 경우에는 20.4%, 주왕산의 경우 31%, 가야산의 경우 35.5%, 그리고 북한산과 치악산의 경우에는 48% 정도의 應答者만이 國立公園으로 올바르게 認識하고 있었다. 이 결과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國立公園은 國立公園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나 생소한 곳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이용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國立公園 利用守則을 잘 준수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운 일이다.

國立公園이 아닌 곳을 國立公園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에는 더 심각했다. 서울 남산을 國立公園으로 잘 못 認識하고 있는 경우가 85.3%인 경우를 비롯하여, 삼각산의 경우 95.9%, 칠갑산의 경우 93.4%, 대구의 팔공산의 경우 91.2%, 마이산의 경우 90.7%, 그리고, 광주 무등산의 경우 81.4%의 應答者가 國立公園으로 잘 못 認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立公園과 非 國立公園에 대한 15개 문항중 바르게 마춘 갯수를 점수로 계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최저 20점으로 부터 최고 87점을 받은 학생순으로 나타났고, 應答者의 평균점수는 60점이었다.

#### (2) 國立公園 利用規則에 관한 知識水準

9개 문항을 통하여 大學生들의 國立公園 이용 규칙에 대한 知識水準을 조사하는 질문에서 바른 답을 한 갯수를 합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應答者 개인의 國立公園에 대한 知識水準을 나타내면 평균 55점으로 나타났다.

#### (3) 國立公園 環境에 대한 總體的인 常識水準

大學生들의 國立公園 이용에 대한 상식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環境에 대한 常識水準과 國立公園 이용에 대한 常識水準을 합하여 國立公園에 대한 총체적인 常識水準으로 나타났다. 점수의 분포는 정규분포 상태를 나타냈으며, 총 14점 만점에서 최저 점수는 1점이고 최고는 13점으로 나타났다. 應答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7점으로 나타났다.

### 2) 國立公園 環境問題의 認識

國立公園에서 利用者에 의한 環境毀損問題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나란 질문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應答者는 0.7%,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應答者는 3.2%,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應答者는 7.9%로 나타났다. 반면에 심각하다고 認識하고 있는 사람은 應答者의 62.5%이고,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5%로 나타나 대부분의 大學生들은 國立公園의 環境毀損에 대해 심각하게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國立公園 管理에 있어서 利用者의 쓰레기 방치에 의한 環境問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개발에 의한 경관훼손문제와 利用者의 무질서, 그리고 國立公園에서의 취사행위순으로 나타났으며, 등산로 훼손이나, 자연물 채취 등과 같은 毀損行爲에 대해서는 아직 環境問題로 까지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고 있어 國立公園 管理에 대한 이용자의 教育 및 弘報대책이 요구된

다. 일반인들의 경우 環境專門家에 비하여 環境 毀損問題를 심각하게 認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Manning, 1986), 동시에 國立公園이라는 自然環境은 아무리 훼손되었다고 하여도 도시의 生活環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훼손의 정도를 미미하게 認知하는 경향이 있다 (김용근, 1992). 그러므로 이용자의 國立公園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3. 國立公園管理와 Communication 政策

1) 國立公園의 Communication政策

國立公園을 이용할 때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하여 친구나 동료들을 통한 경우가 應答者의 4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신문이나 잡지에서 얻는 경우가 30.2%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라디오나 T.V에서 얻는 경우는 應答者의 9.3%, 관련 서적을 통한 경우가 7.8%, 기타가 5.6%인 반면 國立公園 管理事務所에서 배부되는 안내서를 통해서 이용정보를 얻는 경우는 불과 4.9%에 불과했다. 특히 國立公園을 방문할 때 管理事務所로부터 國立公園 이용에 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란 질문에 대하여 應答者의 19.3%만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80.7%에 달하는 利用客들이 자료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해 國立公園 管理業務遂行에 있어서 利用案内등 弘報政策을 정비해야 한다.

國立公園의 바른 이용에 대한 弘報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대하여 오로지 3.2%의 應答者만이 잘 되고 있다고 認識하고 있는 결과에 의하면 國立公園 管理當局의 國立公園의 바른 이용을 위한 弘報政策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自然保護 活動 參與 與否

自然保護나 環境保護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느냐란 질문에 대하여 應答者의 42.7%는 경험이 있었다고 답변했으며, 57.2%의 應答者는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같은 질문에 대해 한 지방 도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정주부들의 답

변의 경우 應答者의 22%정도만이 保護活動에 참여한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自然保護活動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등, 1992). 앞으로 自然保護活動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권유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란 질문에 대하여 應答者의 70.2%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6%의 應答者만이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國立公園 이용에서의 딜레마

지정된 야영장에서의 야영행위(Dilemma 1), 공원내에서 모닥불을 지피는 행위 (Dilemma 2), 취사행위(Dilemma 3), 및 야생동물 보호(Dilemma 4) 등 4가지의 딜레마에서, 공원규칙을 지키려는 行態 (Prosocial Behavior)와 그렇지 못한 行態 (Antisocial Behavior)에 대한 應答者의 行爲意圖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4가지의 딜레마에서 공원규칙을 지키자는 提案 (Prosocial Behavior)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提案 (Antisocial Behavior)에 대한 應答者의 行爲意圖間에는 서로 反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딜레마에서 공원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意圖를 가지고 있는 應答者는 그렇지 못한 應答者에 비하여 管理規則을 위반할 수 있는 意圖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Kim, 1990). <표 1>

<표 1> 각 딜레마에서 공원규칙을 지키자는 제안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에 대한 응답자의 행위의도간의 상관관계

	Dilemma 1		Dilemma 2	
	Antisocial	Prosocial	Antisocial	Prosocial
Antisocial	1,0000		1,0000	
Prosocial	-3310**	1,0000	-5559**	1,0000
	Dilemma 3		Dilemma 4	
	Antisocial	Prosocial	Antisocial	Prosocial
Antisocial	1,0000		1,0000	
Prosocial	-4289**	1,0000	-5099**	1,0000

\*\* 1-tailed significant at .001

4. 變數間的 相關關係

1) 女子와 男子 應答者간의 差異

본 연구에서 여자 應答者에 비하여 남자 應答者가 環境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環境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래 環境保護活動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성별차이에 따른 응답자의 環境에 대한 관심, 環境문제에 대한 인식정도, 및 環境보호활동 참여의지의 차이

	環境에 대한 관심			環境문제 인식			環境보호활동 참여의지		
	Mean	SD	t	Mean	SD	t	Mean	SD	t
남 자	1.023	0.733	2.75	0.484	0.762	3.08	0.852	0.714	2.86
여 자	0.858	0.680		0.287	0.739		0.680	0.710	

p<0.005 (One-tailed test). alpha=0.05

國立公園에 관련된 常識水準에 대해서도 남자 應答者가 여자 應答者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 참조), 國立公園 指定與否를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남자 應答者가 여자 應答者에 비하여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미국 大學生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로써 (Kim, 1990) 동서양의 구분없이 남자 大學生들이 여자 大學生에 비하여 環境問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성별차이에 따른 응답자의 국립공원내에서의 규칙인식수준의 차이

	Mean	SD	t
남 자	1.023	0.733	2.75*
여 자	0.858	0.680	

p\*=0.001(Onetailed test). alpha=0.05

<표 4> 성별차이에 따른 야영행위 의도와 야생동물 보호행위 의도의 차이

	야영행위 의도			야생동물 보호행위 의도		
	Mean	SD	t	Mean	SD	t
남자	0.049	1.105	3.71*	0.407	0.975	1.82**
여자	-0.299	1.100		0.263	0.878	

p\*(0.000, p\*\*(0.05(Onetailed test), alpha=0.05

國立公園에서의 딜레마에 대해서는 남자 應答者가 여자 應答者에 비하여 야영금지 구역에서의 야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동시에 공원내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람쥐에게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提案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 보다 더 否定的인 意圖를 갖고 있었다(<표 4> 참조).

2) 環境保護나 自然保護 活動에 參與한 經驗與否에 따른 차이

環境保護活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應答者가 그렇지 못한 應答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環境關聯問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스로 環境關聯問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장래 環境保護活動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받을 경우에 대해 環境保護活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應答者가 그렇지 못한 應答者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었다(<표 5> 참조). 이와같은 결과는 한 지방도시에서 실시한 주부들의 의식조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결과가 나타났다(김용근, 1992).

國立公園에서의 딜레마에 대한 관계에서는 環境保護活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應答者가 그렇지 못한 應答者에 비하여 야영금지 구역에서의 야영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15킬로를 더 걸어가서 지정된 곳에서 야영을 하자는 提案에 대해서는 보다 더 肯定的인 意圖를

〈표 5〉 환경보호활동 참여 경험여부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보호활동 참여의지의 차이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문제 인식			환경보호활동 참여의지		
	Mean	SD	t	Mean	SD	t	Mean	SD	t
유경험자	1.150	0.659	4.53	0.484	0.762	5.58	0.966	0.615	5.85
무경험자	0.833	0.706		0.287	0.739		0.628	0.746	

p\*(0.000, p\*\*(0.05 (One-tailed test). alpha=0.05

〈표 6〉 환경보호활동 참여 경험여부에 따른 야영금지구역에서의 야영행위의도와 취사행위의도의 차이

	야영을 할려는 의도			야영을 안할려는 의도			취사행위 의도		
	Mean	SD	t	Mean	SD	t	Mean	SD	t
유경험자	-0.233	1.123	-2.34*	1.072	0.750	3.08*	1.084	0.726	3.80**
무경험자	-0.009	1.089		0.854	0.912		0.831	0.836	

p\*(0.01, p\*\*= 0.000 (One-tailed test). alpha=0.05

나타났다. 國立公園內에서 취사를 하지 말고 준 비해 온 도시락만 먹자는 提案에 대해서도 環境 保護活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意圖를 나타냈 었다(〈표 6〉 참조). 이 결과 環境保護次元에서 利用者의 의식을 변할 수 있도록 環境保護活動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체험하는 과정이 매우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정전 등, 1992; 이정전, 오준성, 김용근, 서혜경, 1993).

4) 國立公園의 環境에 대한 總體的인 知識水準 이 차이에 따른 딜레마

國立公園의 環境問題에 대한 常識水準이 높은 應答者와 낮은 應答者間的 國立公園의 管理規則 을 준수하는 行爲意圖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두 집단간의 차이를 명쾌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총체

적인 점수, 즉 環境關聯 점수와 國立公園 이용에 대한 常識點數를 합한 결과에서 4점 이하를 획득 한 應答者를 國立公園에 대한 知識水準이 낮은 집단으로, 11점 이상을 획득한 應答者를 國立公 園에 대한 知識水準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2 집단간의 각 딜레마에서의 行爲意圖를 t-test 로 검증하였다.

딜레마 1: 國立公園의 야영금지구역에서 야영 행위를 하자는 提案과 그러지 말자는 각각의 질 문에 대한 2 집단간의 차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지적수준이 높은 집단의 應答者가 낮은 집단에 비하여 야영금지 구역에서라도 야영을 하 자는 提案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意圖를 보이 고, 조금 더 걸어가서 지정된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자는 提案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意圖를 나 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표 7〉 국립공원에 대한 지적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공원구역내에서의 취사행위 의도와 야생동물 보호 의도의 차이

	취사를 할려는 의도			취사를 안할려는 의도			야생동물 보호의도		
	Mean	SD	t	Mean	SD	t	Mean	SD	t
지적수준이 높은 집단	-0.714	1.117	2.85*	1.286	0.659	-2.78*	0.714	1.013	-2.05**
지적수준이 낮은 집단	-0.088	1.083		0.765	0.919		0.256	0.914	

p\*(0.005, p\*\*(0.05(One-tailed test). alpha=0.05

딜레마 2: 國立公園에서 모닥불을 피우자는 提案과 그러지 말자는 提案에 대한 2 집단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國立公園에 대한 지적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國立公園 지역에서 모닥불을 피우자는 提案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 산불조심을 위하여 모닥불을 피우지 말자는 提案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딜레마 3: 國立公園에서의 취사행위에 대해 國立公園에 대한 지적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더 부정적인 意圖를 나타냈으며, 國立公園에서의 이용규칙을 준수해 취사행위를 하지 말자는 동반자의 提案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표 7> 참조).

딜레마 4: 國立公園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행동에 대해 이용규칙을 준수해 다람쥐에게 음식을 주지 말자는 提案에 대해서는 國立公園에 대한 지적수준이 높은 집단의 應答者가 낮은 應答者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意圖를 보였다. 그러나 다람쥐에게 음식을 주자는 提案에 대해 2 집단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國立公園에 관한 지적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었다 (<표 7> 참조).

딜레마 1이나 딜레마 2에서 2 집단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이유는 딜레마가 내포한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類推할 수 있다. 즉, 國立公園의 管理를 위해 利用者가 甘受해야 할 부분이 受收用限界를 넘을 경우 利用者들은 管理規則을 준수할 意圖를 포기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본인의 건강이나 신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Schwartzkopf, 1984). 이와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딜레마 1의 경우 오랫동안 산행을 하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기후조건도 나빠지는 環境에서는 國立公園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아 公園管理 規程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逆心理, 즉 부메랑효과 (Boomerang Effect)가 발생하는 것이다 (Kim, 1990).

반면에 딜레마 3의 경우에는 도시락이 준비된

상태이므로 라면을 끓이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은 도시락이라는 대체물에 의해 相殺될 수 있으며, 딜레마 4의 경우에는 다람쥐라는 제3자의 보호문제가 당사자들이 감수해야 할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公園管理 規則을 준수해야 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立公園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해 利用者의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에서는 될 수 있으면 次善策을 선택할 수 있는 代案이 제시되어야 하며, 利用者의 選擇基準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메랑 효과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해 주어야 한다.

## VI. 結 論

본 연구는 전국의 6개 대학교 558명의 남녀 大學生을 중심으로 한 設問調査를 통하여 國立公園의 環境毀損行爲의 배경을 이해하는 연구로 國立公園에 관한 知識水準과 環境汚染 行爲意圖와의 關係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大學生들의 環境問題에 대한 관심과 國立公園의 環境毀損問題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應答者의 대부분이 環境汚染에 대해 자신들도 加害者라는 認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협조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적절한 Communication政策이 개발된다면 國立公園 環境毀損問題를 해결하는데 매우 밝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大學生들의 環境에 대한 常識水準은 평균 62점으로 일반 주부들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國立公園에 관한 총체적인 知識水準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57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남학생들의 점수가 여학생들의 점수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環境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일수록 國立公園의 총체적인 점수수준이 높았었다.

國立公園에서 Communication政策의 수준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國立公園의 이용을 위한 弘報資料를 國立公園 管理事務所를 통하여 획득한 應答者가 4.9%에 불과한 반면, 應答者



의 80.7%의 大學生들은 國立公園 管理事務所로부터 이용에 관한 자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단지 應答者의 3.2%만이 國立公園의 바른 이용에 대한 弘報活動이 적절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國立公園의 利用客을 위한 弘報政策의 補強이 시급한 실정이다.

大學生들의 自然保護活動의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으나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하여 自然環境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國立公園에 관한 총체적인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國立公園의 바른 이해와 관심을 高潮시키기 위해 利用者의 입장에서 管理業務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國立公園 이용에서의 딜레마에 대해서 공원이용 규칙을 준수하려는 意圖와 상황에 따라서 위반 할 수도 있다고 하는 違反意圖와는 서로 反相關關係가 있었으며, 國立公園에 관한 총체적인 점수가 높은 應答者가 그렇지 못한 應答者보다 公園의 管理規則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해 國立公園 環境毀損을 利用者 스스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國立公園에 대한 知識을 높히는 교육홍보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國立公園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管理規則의 制定背景 및 環境汚染行爲의 장기적인 결과를 설명해 주는 因果應報의인 弘報資料들의 개발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自然公園의 管理의 3가지 기능, 즉 자원이거나 시설의 維持管理, 利用者 行態管理 및 Service 管理機能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물리적인 維持管理에 치중해 왔고, 利用者의 社會心理的인 기초연구를 통한 利用者行態 管理部分에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自然公園의 環境汚染과 資源破壞의 根源은 利用者의 毀損行爲의 배경을 보다 철저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여건에서 본 연구는 利用客에 의한 環境毀損行爲를 社會心理學的인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Communication 政策에 대한 社會心理學的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그 意義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公園管理에 직접 활용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기초이론 연구의 측면에서 毀損行爲意圖를 이해함으로써 公園管理者의 利用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利用者를 교육하거나 弘報하는 實證的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利用客 協助型 管理方法들의 효율성을 판정하는 자료를 만들고, 公園내의 안내판체계를 재정비하거나 公園내에서의 規制나 汚染行爲를 예방하는 홍보자료의 개발이나 이러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배부하는 방법등을 개발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引用文獻

1. 김용근(1991) 「무등산을 푸르게—우리의 얼굴 무등산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나」, 제2회 무등산사랑 심포지움 주제발표.
2. 김용근과 Gramann, J. H.(1991) “국립공원내의 환경오염행위 관리를 위한 Communication 정책의 효과”, 「한국조경학회지」, 42:32~40.
3. 김용근(1992) “자연휴양자원 관리를 위한 Social Dilemma 해소방안”, 「한국임학회지」, 80(3):287~295.
4. 이정전, 오준성, 서혜경, 김용근(1992) “패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 「광주직할시 시정연구논총」, 창간호:203~251.
5. 이정전, 오준성, 김용근, 서혜경(1993)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 향상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광주직할시 시정논총」, 2.
6. Ajzen, I. & M. Fishbein,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on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MJ: Prentice-Hall, Inc.
7. Davidson, A. R. & J. Jaccard(1975) “Pollution psychology: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1073-1082.
8. DeVries, D. L. & I. Ajzen(1971) “The relationship of attitudes and Normative beliefs to cheation in colleg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3:199~297
9. Gramann, J. H, W. P. Stewart, Y. G. Kim(1989) *Visitor Response to Concession Management Alternatives at Calstab*

- Cavern National Park*, TX: Texas A&M University.
10. Gramann, J. H., G. A. Vander Stoep(1987)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natural resources protection: A conceptual synthesi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4:11. Heywood, J. L., G.W., Mullins, S Blower (1984) "A User-orientation to managing vandalism", *In Trends(Vandalism)*, 21:25-27.
  12. Kim, Yong-Geun(1990) *Depreciative Behavior in Outdoor Recreation Settings: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Prosocial Behavior Theory*, Unpublished dissertation. College Station, TX: Texas A&M University.
  13. Lucas, R. C. (1982) "Recreation regulations-When are they needed?", *Journal of Forest*, 80:148~152.
  14. Manning, R. E.(1986)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Social Science Literature in Outdoor Recreation*, Corvallis, OR: OSUP.
  15. MCAvot, L. H. & R. Hamborg(1984) "Wilderness visitor knowledge of regulations: A comparison of visitor contact methods", *Journal of Interpretation*, 9(1):1~10.
  16. Nielson, C. N., T. Buchanan(1986) "A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of two interpretive programs regarding fire ecology and fire management", *Journal of Interpretation*, 2(1):1~10.
  17. Oliver, S. S., J. W. Roggenbuck, & A. Watson(1985) "Education to reduce impacts in forest campgrounds", *Journal of Forestry*, 83(4):234~236.
  18. Robertson, R. D.(1982) "Visitor knowledge affects visitor behavior", *In Forest and River Recreation: Research Update*, (pp. 49~51). Univ. of Minn.
  19. Ross, T. L. & G. H. Moeller(1974) *Communicating Rules in Recreation Areas*, USDA For, Serv. Research Paper NE-297. Upper Darby, PA: Northeast Forest Experimental Station.
  20. Schwartzkopf, S. K (1984) *Feeding of Golden-Mantled Gro und Squirrels by Park Visitors at Crater Lake National Park*, National Park Service. Cooperative Park Studies Unit, College of Forest. Corvallis, OR: Oregon State University.
  21. Stankey, G. H.(1975) "Forest Management policy: Its evaluation and response to changing public values", *In the American Environment: Perceptions and Policies*, (pp 241~258), NY: John Wiley and Sons.
  22. Young, R. A., A. T. Kent(1985) "Us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recreation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2): 90~106.